

일 주 문



관음사종하스님 장학금 전달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은 5월 26일 인천 서인천교를 방문해 학생 10여 명에게 총 1,6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6월 26-27일 실상사 일대에서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한다. (063)636-3369



동백연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6월 10일 선운사 경내에서 제34회 동백연청 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봉은사 임성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8일 경내에서 영암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및 다례제,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02)511-6070



조계사 설악산 봉정암 특별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6월 18일 경산 팔공산 갖바위 약사기도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도선사 지비도량참법 백일기도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6월 17일 도선사 경내에서 지비도량참법 백일 정진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회장 세운 스님은 6월 25일 단양 천태종 구인사에서 제 4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를 봉행한다.



여름불교학교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6월 20일 서울 구름사에서 제45회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달마 무료 보시전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장 원목 스님은 6월 18-20일 포항 경북일보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청소년 불우 이웃돕기 '달마 무료 보시전'을 개최한다.



불교교육연합회 포럼 개최
불교교육연합회 오영교 회장(동국대 총장)은 6월 11일 동국대 분관 로터스홀에서 '불교종립학교와 종교개혁'을 주제로 불교포럼을 개최했다.

“조계종 브랜드 알리는데 주력 할 것”

개원 1주년 맞은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



“연수공간이 필요해 문화원을 찾았다가...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전통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사진)은 6월 8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후 1년이 문화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조계종 브랜드를 살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기치로 개원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전통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사진)은 6월 8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후 1년이 문화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조계종 브랜드를 살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오 스님은 2009년 11월 본부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문화원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연수를 희망하는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도 갖췄다. 또, 외주였던 문화원 식당을 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헬빙식으로 각종 받는 사찰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업체 등 성인 연수시에 가장 호응이 좋다. 문화원은 불교적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원에는 지금까지 종립학교 학생 연수 외에도 웅진그룹, 금호생명, 근화제약 등 50여 업체가 다녀갔다. 문화원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교계 외의 일반기업체 연수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참선

전통불교문화원, 참선 입문 프로그램 상설 운영

일반인을 위한 1주일 과정의 참선 입문 프로그램이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상설 운영된다.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은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1주년을 맞아 조계종단 최초로 6박 7일 과정의 참선 입문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토요일 오후 입재해 금요일 오전 회향하는 참선 입문프로그램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수덕사 방장 설성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이 번갈아 증명법사를 맡아 법문과 화두점검을 해준다.

특강 강사로는 전 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서경대 박영재·서명원 교수, 변희욱 박사 등이 참여한다. 행사 가이드로는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 동국대 서재영 박사가 나선다.

전통불교문화원 박희승 총괄부장은 “참선 프로그램은 불교 기본교리 습득을 통한 발심 유도-> 화두 참구법 지도-> 행선과 운력을 포함한 선실수 순으로 진행돼 초심자도 누구나 쉽게 참선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참선 프로그램에는 종교를 초월해 참선을 알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23만원. 참가신청은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불교문화원은 1박2일 과정의 ‘선재 스님의 전통사찰 김치만들기’ 과정을 개설했다.

7월 10-11일 첫 실시되는 김치만들기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은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회비는 25만원. 직접 담근 김치는 집으로 가져간다. (041)841-5050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문화원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인근 태화산 자락 3만3000㎡(1만평)에 지상 3층 규모로 2009년 6월 개원했다. 조계종 내 각종 연수교육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전통불교문화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교육시설과 선방, 다도실, 지대방 등을 갖추고 있다.

종교만큼 쉬운 것 없다

수불 스님, 불교 CEO 조찬법회서 법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왼쪽서 두번째)과 동국대 불교대학 원장 계환 스님(왼쪽서 세번째).

“종교를 믿는 목적은 어리석음(무명)을 타파하고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계환)이 6월 8일 오전 7시 서울 프리아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불교 CEO 조찬법회에서 이 같이 법문했다.

스님은 주제법문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서 “종교는 기복이 남겨져 있으나, 이치에 부합되느냐, 교리가 사실로 증명됐느냐의 세가지가 부합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가 부합하지 못하면 유사종교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교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종교만큼 쉬운 것은 없다.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선이 진리이지만 종교윤리는 선도 악도 진리인 것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사람이 ‘눈이 본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눈이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는 눈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눈이 본다. 보

지 않는다는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아는 삶의 여유로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불 스님은 법문 후 동국대 불교대학에 1억원의 수불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그동안 동국대 학인 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을 발원한 스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 스명어교육 스펙의 템플스테이 견학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법사전법연수교육 일불선교종

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6월 3-4일 인천 청량산 호불사에서 전법연수교육을 봉행했다.

행사는 사찰 운영과 불교와 종단 포교를 위해 청호 법사 등 40여 법사를 대상으로 교육원장 법혜 스님이 주관해 진행했다.

고시위원장 원각 스님, 부산총무원장 삼주 스님,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특강을 통해 법사들에게 바른 전법을 당부했다.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화엄 스님은 화향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신도들에게 불심을 심어가는 법사님이 이 시대의 일불선교종을 바로 지켜내는 참다운 중도”라고 말했다.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열심히 포교하는 여러분이 더욱 발심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했다. (02)998-8161

조동섭 기자

전국 어린이 연꽃문화제



서울·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이 불교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6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 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 은정불교문

화진공연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예선,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월 13일 광주지역을 끝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어린이 연꽃문화제는 마무리 됐다.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본상 수상자는 6월 16일에 발표된다.

이상언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0. 6. 26(토) 오후 1시부터 ~ 6. 27(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옥천범음대 특강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산재가 행하여짐에 있어서 도량장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량장엄’ ‘가사조성법’ ‘법고무’ 과정을 개설하여 특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법고무’ 과정은 소정의 검증을 통하여 학교장 명의로 법고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교 수	기 간	강의요일	시 간
도량장엄	이경암스님(준보유자)	2010년 7월 1일~8월 5일 6주	매주 목요일	오후1시~4시
가사조성법	현 종 스님(장벽웅스님 계자)	2010년 6월 29일~8월 3일 6주	매주 화요일	오후1시~4시
법 고 무	이기봉스님(준보유자)	2010년 6월 30일~8월 4일 6주	매주 수요일	오후1시~4시

- ▶ 수강료 : 400,000(사십만원)정
- ▶ 재료비 : 실습 재료비 별도
- ▶ 문 의 : 02)392-3234

※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과 종강일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 무 형 문 화 재 영 산 재 보 존 회 부 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이 기 봉 합 장